

다카마쓰즈카(高松塚) 고분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에도 시대의 문헌이나 그림이 있어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농작물 저장혈에서 응회암 절석이 들여다보인다는 것이 그 지역에 알려져 있었고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쇼와(昭和)47년 아스카무라(明日香村) 기념 사업으로 고분의 발굴 조사가 결정되었고 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가 조사를 하게 되어 아보시요시노리(網干善教)를 중심으로 현지조사가 시행되었다. 이 조사에서 일본에서는 최초로 대륙풍의 극채색 벽화가 발견되어 고대사 붐의 발단이 되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판축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지름 약23m의 원분으로 중앙에는 7세기 말~8세기 초두의 횡구식 석곽이 있다. 석재는 니조산(二上山) 백색 응회암의 절석이고 석곽의 치수(안치수)는 폭103.5cm, 높이 113.4cm, 깊이 265.2cm이다. 석실의 구조는 상석·벽석·천정석을 상자모양으로 짜서 구축한 것으로 내면은 회칠(漆喰)로 마무리되어 벽화가 그려졌다. 남쪽 면에 대해서는 중세에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벽화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벽화는 동쪽 벽면에 청룡, 서쪽 벽면에 백호, 북쪽 벽면에 현무의 사신(四神)(주작은 도굴갱으로 파괴), 인물(남자군상·여자군상 각4명씩 동서 양쪽 벽면), 일상(日像; 동쪽 벽면)·월상(月像; 서쪽 벽면), 천정부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여자군상에는 둥글부채·불자(拈子)·여의(如意) 등이, 남자군상에는 차양·대도 자루·의자·창 자루·구장(毬杖) 등이 소유물로 그려졌다. 일상은 금박, 월상은 은박이 붙여졌고 구름은 똑같이 주(朱)로 직선을 그려 표현했다.

석관 안에서는 회칠 목관편, 금동제 대엽화문 관식금구(對葉華文棺飾金具), 육화형 좌금구(六花形座金具), 못 등이 출토되었다. 관은 길이 199.5cm, 폭58cm로 복원된다. 또 피장자로 보이는 인골의 일부도 발견되었는데 감정 결과, 중년 남성의 것으로 생각된다.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부장품은 적지만 은제 도장구(刀裝具), 구슬류, 해수포도경(海獸葡萄鏡; 중국 서안의 독호사정묘(獨狐思貞墓) 출토 거울 등의 동범경(同範鏡)이 있다)이 출토되고 있다.

고분은 국가 특별사적, 벽화는 국보, 출토품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